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12:00 / 배포 2026. 11. 19.(목) 07:00
<11. 20.(금) 조간>

'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 공시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 매출액 약 35%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발생, 총수 집단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 간 대비 2.4배
-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그 외 집단의 2배 이상, 대부분 수의계약 체결(92.0%)
- 계열사 간 상표권 유상 사용거래 지속 확대,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집단 전체의 약 5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2025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시장의 감시를 통해 공시 집단의 **불합리한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

1. 상품 · 용역 내부거래 현황

◆ **(분석대상)** '26.5월 지정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2,871개** 사(미공시, 매출액 없는 회사 등 제외)의 **'25.1.1.~'25.12.31.**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

* 국내계열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국내(외)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및 그 비중

〈 전체 공시집단 〉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102개) 소속 분석대상 **국내 계열회사**의 2025년 전체 **매출액 중 35.0%**가 **국내외 계열회사 간 거래(내부거래)**에서 발생하였고, 그 금액은 총 **84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5%**(금액 **277조** 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3.5%**(금액 **564조** 원)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국내 계열사 간 거래**의 **약 2배**이다. 이를 **총수 있는 집단**으로 한정

하면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26.3%)과 **국내계열사 간** 비중(10.9%) 간 **격차**는 **2.4배** 이상으로 더 **커진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4.1%), 「**라인**」(31.2%), 「BS」(29.1%), 「**쿠팡**」(27.0%), 「**포스코**」(26.6%) 순으로, 올해 신규 지정 집단인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집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대방건설**」은 **2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현대자동차」**(60.9조 원), **「에스케이」**(49.7조 원), **「삼성」**(28.3조 원), **「포스코」**(22.3조 원), **「쿠팡」**(15.9조 원) 순으로, **「쿠팡」**은 작년 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약 **3조 원**이 **늘어** 금액 기준 **상위 5위권** 내로 새롭게 **진입**했다.

〈 총수 있는 집단 〉

총수 있는 집단(89개) 중 **상위 10대 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약 185조 원**(내부거래 비중 12.6%)으로,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277조 원)의 **66.7%**를 차지하였다.

*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한화, 롯데, HD현대, 지에스, 신세계, 한진(지정순위 순)

전체 총수 있는 집단에서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간** 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계속되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소속회사**들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22.8%)이 **가장 높았다.**

*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9.6%)**, 30% 이상**(11.5%)**, 50% 이상**(17.8%)**, 100%**(22.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31개, 이하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로, 유형별로는 **▲총수일가 지분 20% 회사**(331개)의 내부거래 **비중**(9.6%)이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회사(500개)의 **비중**(12.4%)보다 **낮았고**, **비상장사**(13.3%)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장사(8.8%)보다 **4.5%p 높았다.**

*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① 및 ①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10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10대 집단 외** 규제대상 회사(723개)의 내부거래 비중(**7.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업종별로는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5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46.6%)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전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38.6조 원) **대부분**은 **수의계약(92.0%, 35.5조 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88.2%, 33.0조 원) 대비 수의계약 **비중**(3.8%p), **금액**(2.5조 원)이 **모두 늘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등 경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거래 조건 등에 따라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일부 집단에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되고 있는 점,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그 외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규제대상 회사의 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타 내부거래(자금 · 자산 및 상표권) 현황

〈 자금 · 자산 〉

◆ '26.5월 지정된 102개 **공시집단 중, '25.1.1.~'25.12.31.** 기간 동안 **자금 및 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집단 기준으로 분석

'자금' 내부거래를 공시한 78개 공시집단 소속회사가 '25년 **국내 계열사**를 통해 **조달한 차입금**은 **총 54.1조 원**으로, 작년 대비 **19.7조 원 증가***하였다. 전체 차입금 중 계열 **비금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44.6조 원**, 계열 **금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9.5조 원**이었으며 **총수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에 대한 **차입 금액 집중도가 높았다.**

* 삼성전자(주)가 삼성디스플레이(주)로부터 차입한 금액('23년에 차입한 20조 원에 대한 '25년 만기 연장 거래)가 주된 요인(단, '26.2분기 전액 상환 완료)

비금융사가 계열 금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8조 원), 「**롯데**」(0.1조 원), 「**동국제강**」(0.09조 원) 순이며, 총수 있는 집단 중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글로벌세아**」(0.07조 원), 「**셀트리온**」(0.03조 원),「**SM**」(0.03조 원) 순으로 많았다.

'자산' 내부거래의 경우, 83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총 189.4조 원**의 **유가증권**을 **매도**하였으며, 작년 대비 **17.4조 원**이 **감소***하였다. 총수 있는 집단 중에서는 「삼성」(56.8조 원), 「미래에셋」(32.2조 원), 「교보생명보험」(14.8조 원) 순으로 거래 금액이 크며, 대부분 **계열 금융사 간 거래**이다.

* 계열 **금융사 간 거래 감소** 및 지배구조 재편 관련 거래요인 소멸(「에스케이」 등)이 주된 요인

또한 59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총 34.5조 원** 규모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작년 대비 **15조 원**이 **증가***하였다. 담보 제공 규모는 「엠디엠」(9.7조 원), 「한화」(4.1조 원), 「에스케이」·「BS」(3.0조 원), 「신영」(2.1조 원) 순으로 컸으며, 대부분 계열회사 PF 대출 관련이었다.

* 「엠디엠」, 「한화」, 「에스케이」 등의 부동산 개발, 설비 투자 관련 PF 대출 증가가 주된 요인

〈상표권〉

전체 공시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한 **집단 수**와 연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금액**은 모두 **5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5년 계열회사 간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은 전년(72개 집단, 113개사)대비 **8개*** 집단이 추가된 **80개**(123개사)였으며, 전체 **상표권 사용료 거래금액**은 **2조 2,291억 원**으로 전년(2조 1,529억 원)보다 **762억 원**(3.5%) 늘었다.

* 기존 집단 중 새롭게 유상 사용 계약을 맺은 2개 집단(빗썸, 대광)과 신규 지정 집단 중 6개 집단(라인, 웅진,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추가

연간 상표권 사용료를 **2,000억 원 이상** 수취한 집단은 「에스케이」, 「엘지」 등 **2개**, **1,000억 원 이상**은 「한화」, 「씨제이」, 「포스코」, 「롯데」 등 **4개** 집단이며, 이들 6개 집단의 **사용료 수취금액**(**1조 2,838억 원**)은 전체 금액의 **57.6%**이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의 **비율**은 **82.0%**(73개/89개)로, 총수 없는 집단(7개/13개, **53.8%**)보다 **현저히 높았다**. 또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115개 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65개 사)가 수취한 **사용료(1조 7,151억 원)**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수취금액(2조 920억 원)의 **82.0%**에 달한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은 **평균 1.41%**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0.26%)의 **약 5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신규 지정집단 상당수**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에 총수 집단 전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및 수취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는 한편, 내부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스스로** 불합리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1.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보고서
2. 2026년 기업집단별·업종별 내부거래 현황
3. 2026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4. 2026년 기업집단별 주요 내부거래도
5. 집단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6.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책임자	팀 장	김민아	(044-200-4830)
		담당자	사무관	성형석	(044-200-4831)
			조사관	김가인	(044-200-4835)
	부당지원감시과		사무관	성시우	(044-200-48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